

#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위의 성경절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의 독생자를** 인류의 죄를 위해 죽게 주신것을 말하는 귀한 약속이다. 바로 믿어지지 않는 그 사랑이다!

“그러나 이 큰 희생을 한 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사람에게에 대한 사랑을 일으켰거나 또는 아버지로 하여금 구원하시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 것이 아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요 3:16)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러한 큰 속죄를 인함이 아니니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이러한 속죄를 준비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사랑을 타락한 세상에 부어 주시는 일에 매개자가 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후 5:19)셨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겟세마네의 고민과 갈바리의 죽음으로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자께서 우리의 구속의 값을 치르셨다.” (정로의 계단, 영문 13-4 쪽)

이러한 사랑은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한다.

“그리스도의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더할나위없는 진리와 그분의 아버지되심을 모든 시간과, 영원을 통하여 증명한다”. (Selected - 1897)

## 하나님의 희생

이 놀라운 선물이 내포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지구가 창조되기전, 아버지께서는 인류의 대리자가 되시겠다는 아들의 자발적인 제의에 동의하셨다.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곁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속 6:12,13)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다.” (소망 834 쪽)

“그대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고통도 없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 주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하고 천사가 말했다. 죄지은 인류가 죽도록 버려두는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죽게 내어 주는 것은 둘 다 하나님께 고통스러운 것이었다.”(초기 문집 127 쪽)

그분께서 취하셨던 위험을 생각하여 보라. 그리고 또 하나의 위험이 있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을 영원히 잃으셨을수도 있으셨다.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구주와 함께 설 때까지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치러진 대가를 깨달을 수 없다. 영원한 본향의 영광이 우리의 황홀해진 감각 앞에 나타나게 될 그 때에 우리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고 하늘 궁전을 떠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실패와 영원한 상실의 위험을 무릅쓰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소망 131 쪽)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께서 친히 구하러 오신 자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셨을때에 어떠하셨겠는가? 그분께서는 그분의 독생자께서 몸소 십자가에 달리시어 행인들에게서 받는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보셨으나, 사랑하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아무것도하지 못하셨다.

"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 27:46)

하늘의 하나님을 높이자! 이는 그분도 친히 그분의 아들과 함께 고통당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3 : 16). 하나님께서 그분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할 뿐 아니라 속죄 제물로서 죽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타락한 인류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치 않는 화평의 경륜(經綸)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사 우리 인간 가족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시되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게 하셨다.” (소망 25 쪽)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인성을 영원무궁토록 보유하실 것이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10:12, 4:14-16)

이 엄청난 사실을 생각하여 보자.

하나님의 아들은 결코 영원토록 다시는 성육신 이전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그리스도)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게 하시고 그 아들을 가장 높은 하늘로 옮기셨다. 우주의 보좌에 함께 앉으시는 분은 “인자”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가족과 하늘의 가족이 연결되었다.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이시다. 하늘은 인성 속에 모셔지고 인성은 무한하신 사랑의 품안에 안긴다.” (소망 25,26 쪽)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의 사랑을 생각할때, 어떠한 감사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할것인가!

## 아들의 희생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이제 사람의 아들로써 인류와 연결되셨다.

그러나 성육신 전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다.영원의 머나먼 날들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형상을 가지신 아들을 가지고 계셨나니, 곧 신성의 모든 면에서 그분은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과 “**영광의 광채**” 이셨다.

아들로써 하나님과 꼭 같은 본질을 가지셨기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실수 있으셨다- “ 하나님이며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흠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히 1:3,8)

독생자로써 그리스도께서는 “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그가)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혹-유업)으로 얻으심이니” ( 히 1:4)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천사들과 같이 창조된 아들도 아니며. 용서받은 죄인으로 입양된 아들도 아니고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으로 출생하신 아들이시다.- “ ~ but a Son begotten in the express image of the Father’s person.”  
히 1:1-3 (Signs of the Times. 1895)

만약 예수님께서 피조물이셨다면, 그분도 율법아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제공해 주시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곧 하나님으로써, 죄로 저하된 인류를 구속할 수 있으셨다.

성육신의 기적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신성에다 인성을 입으셨을때에, 그분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었던 “ 그 거룩한 자” 이셨다. 그 때부터 아들이 되신것이 아니라,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겸한 아기가 되어서 그분 자신의 피조물에게 적용되는 모든 율법아래 계신것이다. \*눅 1: 35

그러므로,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 4: 4,5)

예수그리스도께서는 단지 2000 전 베들레헴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 영원한 세월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영원 전부터” 라는 것은 “시작이 없다” 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나 영원의 세월의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가 5:2 절에서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라고 한다, 이러한 단어들을 연구한 것을 살펴보면, 단순히 “ 긴 시간” 또는 기나긴 세월을 명시한것이다, 히브리어 단어, “olam 올람” 은 감추어진, 사라지는 지점, 영원, 항상, 또는 고대의 기간, 영원한, 긴 세월, 옛 세월, 끊임없이 계속되는,세상의 시작, 끝없는, 이라는 말들로 옮길수가 있다, 예를 들어 같은 히브리의 단어로 (창 40:15) 영원한 언약, (출 40:15) 영원한 제사장, (렘 20:11) 영원한 혼란, (렘 23:40)영구한 수치, (사 35:10) 영원한 기쁨, (사 55:13) 영원한 표, (단 12:2) 영원한 생명으로 사용되었다, 명백하게 어떤 자들은 시작이 있다고

할것이고, 어떤 자들은 시작이 없다고 결론을 지을것이다. 이 단어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분께서 영원의 어느 시점에 출생하셨다는 것을 말할때에 그 뜻을 초월하지 않으며, 우리의 이해력을 확실히 초월하나, 그러나 그분은 끝이 없으시다.

그분의 성육신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다시 얻으셨다.

## 기름부음을 받은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한분이신 것을 잘 이해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로 칭함을 받고 있는 아들을 가지고 계신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혹:메시아)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육십 이 이레 후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직역:메시아)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단 9:25,26)

단 9:25,26 해석:

히브리어 'masḥiyacḥ' (Strong's 4899)는, “기름부음을 받은자” 라는 의미로써 흔히 헌신적인 사람 (왕, 제사장,성도) 특별히 기름부음을 받은 메시아를 의미한다. “메시아” 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은채 메시아를 가르키는 다른 많은 성구들이 있다.

다니엘에 나오는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봉사를 시작하시는 시기와 그분이 갈바리 십자가에서 죽으실것에 대한 정확한 시기들을 나타냄으로써 메시아를 가르킨다. 그분이 사망하신 해 : AD 31 에 가장 큰 희생이 바쳐짐으로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 하셨다.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사 53:8

##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자)의 신분 → 하나님의 독생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잠 30:4,5)

그분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 7:14)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 마태 1:21) (**히브리어로 "예수" 라는 이름은 - "Yeshua" 이며; 구원, 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라는 뜻임**)

그러나 예수께서는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한 순간부터 그분의 삶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셨는데 초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녀의 몸 안에 잉태되신 것이다.

구속의 사업은 신비로 불리우며, 영원한 의를 받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실로 신비이다.

인류는 죄의 결과로써 하나님과 적의 관계에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과 인간들에게도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무한한 대가와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인성을 취하셨다. 그분의 신성을 가리시고, 그분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셨다.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생애 하셔서 육신으로 죄를 정죄하고, 하늘의 지성적 존재자들에게 율법은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영원한 이익을 위하여 제정되었음을 증명하신 것이다." (성경주석 7 권 915 쪽)

인간이 고상하게되고, 구원받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모험을 명상할때에 우리의 마음은 부드럽게되고 굴복되어야 한다.

그분이 이 세상에 기름부음을 받은 메시아로 오셨기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영원한 세월”에 태어나실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이셨다. (헬라어도 종종 히브리어 “메시아”를 사용하는데, 헬라어로는 “기름부음을 받은자”를 ‘Christos’, 또는 “그리스도” 라고 한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분은 강변에서 무릅을 꿇으시고 그분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아버지 자신께서 아들의 서원에 응답하셨다. **“아버지의 영광의 빛줄기가 직접 보좌에서 흘러나온다.** 하늘이 열리고 구주의 머리 위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에 대한 --- 적절한 표상인 비둘기 같은, 가장 순결한 빛의 모양이 내려온다.**

사람들은 서서 묵묵히 예수를 주목하였다. 그분의 몸은 하나님의 보좌를 항상 두르고 있는 그 빛으로 덮여 있었다. 위를 향한 그분의 얼굴은 그들이 전에 사람의 얼굴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영광으로 빛났다. 열린 하늘에서 한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였다. (소망 112 쪽)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시간에 그분을 메시아로 만든것이 아니며, 그것이 영원전부터 기름부음을 받은자로 인정하는 것이였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자신에 관하여 이렇게 증거하신다.: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잠언 8:23,24)

위 성경절에서 "세움을입은"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 'nacaḵ' (Strong's 5258, also spelt 'nasaḵ' ) 이며, 원래의 의미는 "붓다" ;왕에게 기름을 붓다, 쉬우다, 녹다, 붓다, 금속을 녹이다 라는 의미이며, "붓다" 라는 의미로써 기름부음을 받는 것으로 언급 될수도 있다. (참조 레 8:12)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난후, 그는 기구와 가구들과 제사장들을 기름으로 정결케하였다.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출 40:9) 'nacaḵ' ,이라는 단어가 잠언과 또는 시편에 예수님께서 기름부으심을 받을때에 사용되고 있다. "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nacaḵ)"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 시 2:6,7 이 메시아적 시편은 그분이 지상 시온 언덕에서 인성을 입으신것과 그분의 신성과 하늘의 시온을 언급하는 것이다. (시 48:1,2 절 참고) 기름은 하나님의 영의 상징이며,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아버지께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며, 그분께서 침례를 받으실때에 다시 기름 부으심을 기억하여야 한다.

유대제국은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렸으며, 예수님의 탄생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그분의 오심을 이렇게 전하였다. "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눅 2:11

유대인들이 침례요한의 행적을 보았을때에, 놀라며 그가 그 메시아가 아닌지 "심중에" 의논하였다. "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므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기심중에 의논하니" (눅 3:15)

바리새인들은 침례요한에게 나아가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요한은 대답하였다. 그는 곧 "나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임을 기억하자. 이것은 예수님의 침례식이 거행되기 이전이다.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침례)를 주느냐" ( 요한 1:19-25)

요한의 대답은 이러하였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사 40 :3 , 요 1:23)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신 후, 안드레와 요한은 그분이 곧 메시아이신것을 믿었으며 그분을 따랐다. 기쁨에 벅찬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았을때에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요 1:40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서는 나dana엘을 찾으러 나갔던 빌립을 만나셨다. “ 빌립이 나dana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을 만난 나dana엘은 이렇게 말하였다. “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요 1:45,49)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 요 4:25)

예수님께서서는 그녀에게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26 절) 라고 대답하셨다.

그녀는 마을에 달려가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29 절)

“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리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들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졌다. (요한 4:30,39,40)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으자”로 인정하였다.

##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여든...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다가갔을때에, 그는 그분의 신분을 아주 잘 알고 있었으나, “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도전적인 말을 하였다.

그 다음 사단은 그분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고 하였다. (마태 4:5,6)

그 후, 사단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준 후 감히 “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고 말하였다. (마태 4:8,,9)

이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사단을 꾸짖으시고 떠나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조용히 대기만자의 말을 들으실 때에 심적 투쟁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사단에게 입증해 보이거나 자기 비하의 이유를 설명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소망 119 쪽)

“ 비록 사단이 하늘의 거룩한 천사처럼 가장하였으나 예수님은 사단을 알아보셨다. 사단과 하나님의 아들이 처음 맞서 싸웠을 당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만군의 사령관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발생한 반역의 지도자였던 사단은 쫓겨났다. 이제 그들의 형편이 역전된 것처럼 보였으며 사단은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최대한 이용했다. 사단은 이렇게 말한다. 천사들 가운데 가장 강한 천사가 하늘에서 추방되었다. 예수의 외관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고, 사람에게서 외면 받은 타락한 천사가 바로 그라는 것을 보여준다. 신적인 존재라면 이적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가 있을 것이다.”(소망 119 쪽)

자신을 독생자라고 선언하신 그분의 아버지의 음성을 기억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을 저항할수있는 능력을 가지셨다.

하늘에서 들려온 이 음성은 듣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분이 하늘 법정에서 그분의 아버지와 하신 서약을 완수하도록 격려하는 것이었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도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였으며, 그들은 그분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그분께서 그들을 벌하실 능력이 있으시며, 언젠가 그렇게 하실것을 알았다.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때에 귀신의 천사들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 마태 8:29)

“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줄 앎이니라.” (눅 4:41)

그렇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로써 그분의 신분을 제대로 알았다.

##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분의 봉사의 마지막에 이르러,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다. 제자들은 “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마태 16:14) 라고 대답하였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마태 16:14-16)

구세주께서는 그의 대답에 베드로를 축복하셨으며, 그것은 아버지께로써 말미암은 계시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열두 제자의 믿음을 대변하였다. 잠시 동안 저희의 눈은 “보이는 것”에서 떠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후 4 : 18). 인성의 모습 이면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식별하였다..” (소망 413.쪽)

나사로의 부활 바로 전, 예수님께서서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는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요 11:25-27)

마르다의 대답은 분명히 그녀가 예수님께서 영원한 세월에 나오신 자로써 이해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며,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줄 믿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성도들의 영생의 보증이며, 이는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의 생애의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자를 부활 시키시기 위하여 아버지를 의뢰하셨으니 이는 “예수께서는 사람이 당신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가질 수 없는 어떤 특성을 나타내거나 어떤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 기 때문이다. (소망 664 쪽)

그분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재림시 죽은 의인들이 그분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할 때를 바라보신 것이다.

유대인들과 담화 중에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였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요 8:53)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아버지께 경의를 드리신 다음, 이렇게 대답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 8:58)

유대지도자들은 즉시 예수님께서 “나” 라고 하신 것의 의미를 깨닫고, “돌을 들어 치려”하였다.( 요 8:59)

슬픈 사실이지만 이 유대지도자들은 호렙산 가시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니라” 라고 하신 분과 직접 대면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거절하였다.

(출 3:1-6; 14:19; 23:20-23. 고전 10:4)

다른 한때,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실때에, 유대인들이 그를 에워싸며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케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라고 하였다. (요 10:24)

다른 말로 말하자면, “네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인가? 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이 예수님의 요단강에서의 침례를 언급하는 것이 아닌것은, 거의 삼년 반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있었으며 그리고 감시자들은 그분의 모든 행동을 주시 해왔었다. 그들의 질문은 그분이 하늘에서 “기름 부음” 받은 것에 관한 것이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어늘.” (요 10:25)

“그들은 성령의 음성이 저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니 그분의 제자가 될 것을 고백하라고 재촉하는 소리를 들었다. 저들은 그분의 임재의 빛 가운데서 그들의 부정함을 깨닫고 그들로서는 만들어 낼 수 없는 의를 사모하였다. 그러나 저희가 그분을 거절한 후에 그분을 메시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굴욕적인 일이 될 것이었다. 그들의 발을 불신의 길에 들여놓았으므로 그들은 너무 교만하여 잘못을 자백하지 않았다.” (소망 322 쪽)

예수님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다. “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요 10 :27-30)

그의 말씀에 화가 난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라고 하셨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람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람하다 하느냐.” (요 10:36)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제 핑계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적으로 그분을 죽이고자하는 음모를 품었다.

##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께서 절기 중 하나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셔서 베데스다 연못을 거니실때에, 그곳에 38 년 동안 앓아 누어 있었던 한 사람을 치료하셨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을때에 그 사람은 기뻐 하면서 걸어 나갔다.

그러나 그 날은 안식일이였다.

다른때에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안식일을 범한자로 누명을 씌우지 않았었다.

얼마후 이 사람은 예수님께 대한 바리새인들의 적의를 모른채 어느 분이 그를 치료 하였는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을 범했다는 누명을 답변하기 위하여 산헤드린 앞에 서셨다.

이에 대응하여 “예수께서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하는 사업이 안식일의 법과 조화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고통당하는 인류를 섬기기 위하여 하늘과 땅을 항상 오르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사업과 조화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선언하셨다.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 날들 동안에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계획들을 수행하신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한층 더 격분하였다. 그들은 그분이 안식일에 관하여 하신 주장은 회피하고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하신 주장에 분노를 격발하였다. 그들의 분노는 한계를 몰랐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는 비난을 반박하셨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비난하고 있는 그 사업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권위는 곧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본성과 의지와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이다.” (소망 204-208 쪽)

이 문제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교리나 혹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로 그 분께서 메시아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믿지 않음에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갑작스럽게 안식일을 범하였다는 그 범과의 중요성은 잃어 버렸고, 대신 공회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도다 라는’** 더 큰 누명이 씌어졌다.

##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도다

그분의 산헤드린의 심문전에, 예수님께서서는 맹세하에 질문을 받으셨다. “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 마태 26 :63 )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 64 절)

갑자기 대제사장은 그의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저가 참람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람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저들이 대답하기를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고 하였다. (65,66 절)

유대제국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주장 곧 그분도 하나님이라는 것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나아오셔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실 자로 이해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단 7:13,14 참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신성의 아들되신 진리를 진술하심으로 정죄를 받으시고 죄있는 자로 여겨졌다.

빌라도 앞에 서셨을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라고 소리질렀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너는 어디로서냐” 라고 질문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라고 제사장들이 소리질렀다. (요 19:6.7.9.)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마태 27:39,40)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구원이 제공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 남녀들은 몰랐다. 그들의 모욕을 거절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 (마태 27:41.43.)

“고통 속에서 죽어 가는 예수께서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외치는 제사장들의 말을 다 들으셨다...그러나 비록 조롱으로 한 말이지만 그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에 없이 열성적으로 성경말씀을 연구하게 하였다. 지각 있는 사람들은 듣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했다.” (소망 749 쪽)

##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 사실이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였다.-바로 “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는 그분의 주장이었다.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주제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날 전부터 기름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것을 믿는가? 아니면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도 그분의 주장을 의심하고 있는가? 우리는 아버지께서 실제로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게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가?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름부음을 받으신 아들을 인간의 육체가 되기 위하여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가?

그대가 어떻게 대답하는것에 대하여 조심하여야한다. 만약 앞서 말한 실제의 사실을 부인할경우 중대한 결과들이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일 4:3,요이 7,9 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요일 2:22,23)

요한의 글들을 읽어 보고 과연 예수님께서 그분이 주장하시는 분이신지를 다시 살펴보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요일 4:15; 5:1.5)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지요 영생이시라 ” (요일 5:10,11,13,20,요 17:3)

독자여, 그대는 예수님께서 영원의 날들부터 하나님의 독생자이라는 사실을 믿겠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줄일 것이라고 생각지 말라; 결코 그렇지 않다.이 사실이 그분의 영광을 높인다. 사랑의 아버지께서 죄된 인류를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셨을때에 아버지께서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다.

**삼위일체의 가르침에 의하면, 삼위일체의 두번째 되신 분이 아들 예수님이 된 것이다. 예수님의 지상 공생애동안에 삼위일체 중 일위되신분을 '아버지' 라고 하셨다고 생각하여보자, 그분의 성육신 연구하여 보면, 이 삼위일체 중 일위되신분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실수 없으시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중 세 번째 되시는분 (성령하나님) 이 마리아에게 임하였으므로 바로 이분이 그분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참고: 눅 1:34,35)**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은 결코 이러한 혼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분의 아들이 성육신하셨을때에 아버지께서는 온 우주에서 사역 하시는 그분자신의 편재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그분의 아들의 아버지가 되셨다,

만약 독자가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둔 아버지 혹 어머니라면 독자의 그자녀를 영원히 잃을 수도 있는 가능성과 함께 반역한 인류들을 위하여 죽게 내어주었을때에 그대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명상하라.

사랑하는 독자여, 그대는 지금 이순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이겠는가?

그대가 그대의 생애를 하나님께 굴복하고 이 놀라운 경이를 생각할때에 축복에 축복이 더하여질 것이다. 그대는 영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도 위대하여 그 값이 어떠한지 그분의 독생자를 기꺼이 바칠수 있으셨다것을 깨닫을 것이다.

또한, 아들도 기꺼이 그 값을 치루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 요 3:16)**

**-본 소책자의 모든 예언의 신 인용구들은 영문 페이지임.**